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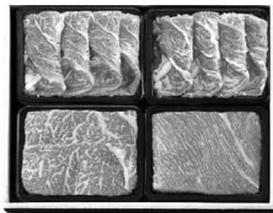
시행도 전에...유통가에 발효된 '김영란법'

〈9월28일〉

가급적 산 제품을 준비하고, 가격에 맞춰 수량을 줄이고, 한방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농수축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 추석 백화점의 선물세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의 주요 추석 선물 중 하나였던 우수 농수축산품 대신 저가의 생활용품 등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31일 유통계에 따르면 올 추석 백화점 선물세트 매대에서는 5만원 이하 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올 추석(9월 14~16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백화점 업계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며 사전 대응에 나섰다. 한우나 굴비는 5만원 이하 상품 구성이 어려워져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이나 건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위주로 5만원 이하 상품이 세



지역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저가 생활용품 위주 재편

5만원 이하 물량 30% 늘려...고가 상품권 판매도 비상

렵게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통조림, 햄 등 가공식품과 차약, 샴푸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개 품목에 대해 10억원어치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5만원 이하 와인세트, 건



강선물세트 등을 늘리고, 구성품 개수를 기존보다 줄인 청과세트와 건과·꽃감 세트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말갈세트, 골드키위 세트, 천연조미료 세트, 멸치세트 등 5만원 짜리 상품

30여종을 새로 출시했다. 기존 세트보다 개수를 줄인 '알뜰 사과·배 세트'(사과 5입·배 4입 4만9800원)도 내놨다.

그러나 신상품 등장에도 기존에 백화점 선물세트에서 5만원 이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이상 세트 비중이 85%를 차지했고 5만원 이하는 15%에 불과했다.

상품권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 선물비 제한으로 주력 권종인 10만원 이상 상품권 판매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선물세트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7월보다 상승 탄력 둔화 예상 개장 30분 연장...실적개선 기대 반도체·방산 관련주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7월 마지막주를 마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8일 오후 2분기 실적에서 9분기만에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후 소각한다는 발표로 29일 연중고점을 돌파했다.

7월 국내증시는 증권사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반등세를 보였다. 이런 상승은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머징국가로 자금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7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매수는 삼성전자에서 국한되지 않고 포스코와 화학업종 등 국내 대표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월에만 7월 6일 하루만 순매수 했을 뿐 20일간 순매수(3조 9778억순매수)를 보였고 지난 주말까지 17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는 외국인 순매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순매수는 환율하락과 이머징 국가의 유통성증대에 따른 단기 투자 성격인 패시브자금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1120원선에 머물고 있는 환율만 본다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환율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활발했던 가격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약화될 수 있지만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국내증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장세인 7월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7월 마지막주 FOMC와 BOJ를 통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유보적인 통화정책 발표와 7월상장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기술적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전 고점에 도달하며 추가상승에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2,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지수의 추가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과 개별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래소 개장시간 30분 연장은 증권사 입장에서 거래량 증가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며 실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대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과 순자산비율(PBR)을 고려하면 3분기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실적개선이 이어지는 반도체업종은 중국이 반도체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장비, 부품, 소재 관련주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중기적인 대응도 가능해 보인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발표로 방산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수주잔고로 중장기적인 실적안정성이 기대되고 3분기 민간항공정비사업자 선정 및 1차 사업규모만 17조원으로 예상되는 미국공군 고등훈련기(T-X) 교체관련 입찰제 안요청서 발표 등 하반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되는 항공산업 및 방산관련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전남본부, 서울 신촌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강진·담양 등 7개 시·군 참여 40개 품목 최대 20% 할인 판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29일부터 2일간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신촌점(점장 최태환)에서 7개시·군(강진·담양·무안·영광·장성·해남·진도)이 참여하는 '전남농협 제철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몽골텐트 5등 규모로 전남의 대표 농특산물 양파, 포도, 복숭아, 건고추 등 40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고 20% 저렴하게 판매하며, 제철과일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양파 1.5kg을

나눠줬다. 특히 전남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높아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남경 본부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휴가철을 맞아 여름과일의 대표생산지 전남을 알리고, 지역 간 판매 경쟁이 심한 수도권 판로확보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전남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록기자 kroh@

이달의 농산물-풋고추

비타민C 사과의 18배...여름 피로회복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이하 aT)는 8월의 제철농산물로 풋고추를 선정했다.

고추에는 매운 맛을 주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풍부해, 이는 지방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풋고추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분한 비타민 공급은 활동량이 많은 여름철 피로회복에 좋으며, 특히 풋고추를 튀겨서 먹으면 튀김의 단백질과 풋고추의 비타민이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더없이 좋은 영양분이 된다.

좋은 풋고추를 고르려면 크기, 향, 색의 3박자를 맞춰보면 된다.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게 고른 것, 색택이 짙은 녹색으로 균일한 것, 고추 고유



의 향이 강한 것이 좋은 풋고추이다.

한편 aT는 매달 2회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제철농산물' 자료를 발간 중이며, 다른 품목들에 대한 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의 '동향/전망 제철농산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관원, 전남-제주 농산물 직거래 간담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은 지난 31일 전남스타팜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주스타팜 협의회원 30여명을 초청해 무안군 스타팜농장인 '꿈어울농조합법인'에서 '전남-제주간 농산물 직거래' 관련 간담회와 '스타팜 협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GAP, 친환경, 전통식품, 유기농 가공식품, 지리적표시품, 6차 산업 인증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제주 스타팜 협의회가 상호 교류함으로써 국가인증품을 생산하는 스타팜 농장들

의 유대강화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스타팜은 우수 농식품 인증의 모델 농장·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48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광주·전남에는 무안 꿈어울농조합법인, 순천 한솔영농조합법인 등 83개소가 있다.

특히 광주·전남 스타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지난 6월 22일 스타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스타팜 지정 업체간 상호교류와 정보공유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광록기자 kroh@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